

비틀스, 54년 만에 영국 싱글 차트 1위



▲ 멤버들의 생전 모습을 합성하여 제작한 '나우 앤드 덴'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왼쪽부터 조지 해리슨, 링고 스타, 폴 매카트니, 존 레논. 사진=유튜브비틀스캡처

차지해 비틀스의 통산 18번째 1위 싱글이 됐다.

'나우 앤드 덴'은 아련한 감성과 풍성한 사운드가 특징인 노래다. 특히 30대에 멈춘 존 레논의 목소리와 80대가 된 폴 매카트니의 하모니가 노래 제목과 어우러지면서 뭉클한 감동을 선사한다.

'나우 앤드 덴'은 당초 레논이 1977년 피아노 반주에 자신의 목소리를 얹은 미완성 데모곡이었다. 비틀스 측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레논의 목소리를 깔끔하게 분리해낸 뒤 멤버들의 연주와 코러스를 더해 신곡을 완성했다.

비틀스는 1970년 해체됐고 이후 레논은 1980년 뉴욕 집 앞에서 열성 팬이 쓴 총에 맞아 숨졌다. 기타리스트 조지 해리슨은 2001년 폐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영국 출신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가 마지막 신곡 '나우 앤드 덴' (Now And Then)으로 1969년 '더 발라드 오브 존 앤드 요코' (The Ballad of John and Yoko) 이후 54년 만에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 정상에 올랐다.

10일 공개된 차트에 따르면 '나우 앤드 덴'은 1위를

마이클 잭슨 가족재킷, 31만 달러에 낙찰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약 40년 전 펍시의 TV 광고에서 입었던 가죽 재킷이 25만파운드(약 31만 달러)에 팔렸다.



▲ 31만 달러에 낙찰된 마이클 잭슨의 가죽 재킷(왼쪽)과 펍시 광고에서 재킷을 입은 마이클 잭슨 사진=프롭스투어

12일 영국 스카이뉴스와 BBC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영국 런던의 경매업체 프롭스투어 옥션에서 진행된 경매에서 잭슨이 1984년 펍시 콜라 광고에서 입은 가죽 재킷이 25만파운드에 낙찰됐다.

검정과 흰색 가죽으로 된 이 재킷은 1984년 펍시가 잭슨을 모델로 기용해 진행한 '뉴제너레이션' 캠페인 가운데 첫 번째 광고에서 잭슨이 착용한 것이다. 광고에서 잭슨은 이 흑백 가죽 재킷을 입고 '빌리진'을

개사한 곡을 부르며 거리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춤을 춘다.

경매업체 측 설명에 따르면 재킷은 웬델 톰슨이라는 사람이 경매에 내놓았다. 잭슨은 생전에 톰슨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미용실에 자주 들렀고 가족·직원들과도 친해져 같이 저녁을 먹거나 놀이공원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한다.

톰슨은 1984년 초 잭슨이 미용실에 왔을 때 이 재킷을 선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잭슨은 자신이 입고 온 재킷을 톰슨이 한번 걸쳐본 뒤 돌려주려 하자 그냥 가지라 하면서 곧 나올 펍시 광고 촬영 때 그곳을 입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LA 아카데미영화박물관, 송강호 영화 14편 상영



▲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 출연한 송강호. 사진=KF

LA 소재 아카데미영화박물관이 한국의 대표 배우 송강호가 출연한 영화를 소개한다.

15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아카데미영화박물관과 협업해 배우 송강호가 출연한 영화를 소개하는 회고전 '송강호: Song Kang-ho'가 열린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오는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 기간 2020년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인 '기생충' (2019)을 비롯해 '사도' (2015), '공동경비구역 JSA' (2000), '박쥐' (2009), '택시운전사' (2017), '반칙왕' (2000), '괴물' (2006), '살인의 추억' (2003), '밀양' (2007) 등 송강호의 대표작을 상영한다.

또 12월 7~10일에는 송강호를 초청해 영화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한다.

박물관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송강호를 "한국 영화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 중 한 명이며 그의 통찰력은 연기의 경계를 초월한다."고 소개했다.

KF 관계자는 "박물관은 송강호를 영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선보이며 연기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배우라고 소개한다."며 "국제무대에서 높아진 한국 영화의 위상이 지속할 수 있도록 박물관의 한국 영화 시리즈 상영을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카데미영화박물관은 아카데미상식을 주관하는 아카데미재단이 2021년 LA에 개관한 박물관이다. 이번 행사는 아카데미영화박물관이 한국 영화를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기획한 세 번째 행사이다.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를 스마트폰과 컴퓨터로도 즐겨보세요!!

생활, 법률, 건강 등의 다양한 칼럼, 여행, 요리, 부동산, 사진, 영화, 사고팔고, 구인구직 매매임대 등의 다양한 생활정보와 한인사회 소식, 지면보기(pdf신문보기)까지

<타운뉴스 QR코드>



townnewsusa.com

타운뉴스 홈페이지 접속 방법

1. 스마트폰 카메라로 왼쪽의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타운뉴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주소창에 왼쪽의 타운뉴스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문 쉽고, 빠르게 타운뉴스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밝고 건강한 신문 **타운뉴스** 온라인 홈페이지: townnewsusa.com